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재적 체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재적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 년 전에 유대 지방에 오셨지만, 2000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재에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어디서나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으로 살아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병든 육체에 맞아 들이시면 치료함을 받습니다. 사업터, 직장 어느 곳에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어 들이면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듯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재 이 시간에, 현재 내 가정에서,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 방법을 잘 터득한 사람은 삶의 진정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이것을 잘 깨달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체험한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에서 성령님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 안에서 체험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1.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는 무엇인가?
2.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선 예수님 편에서 먼저 이루셔야 할 일은 무엇인가?
3. 우리 안에서 체험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I. 첫째로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은 삼위일체 제 3 위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도 행전 사도행전 16:6-7 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 :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행전 16 :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6 절에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성령과, 7 절에서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을 막은 분은 성령님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은 같은 분입니다.

또 우리 뵤전 1:10-11 을 읽어 보십시오.

뵤드로전서 1 :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뵤드로전서 1 :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뵤드로 사도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의 안에 거하던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 : 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내신 아들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나,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영이나, 성령은 다 한 영이며, 부활하신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같은 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영적 세계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 주는 영적 세계는 먼저 창조주로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밑에 선한 천사 그룹과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토속적 사고 관념에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활동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음부로 가든지 하나님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의 기록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붙어 괴로움을 주는 귀신들을 한번도 죽은 조상의 귀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음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전도서는 아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3 : 21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구절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음부나 천국을 의미합니다.

일단 그 곳에 가면 다시 올 수도, 지상의 사람과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눅 16 장에 음부에 가 있는 부자의 영혼이 회개하면서, 세상에 남아 있는 자기 아우들과 연결하고 싶어 하지만, 모두 거부당합니다. 죽고 나면 세상 사람과의 연결은 완전히 단절됨을 보여 줍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의 사람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붙어 괴롭히는 귀신들은 모두 타락한 천사들의 그룹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혼술을 통해 불려지는 것, 영매들을 통해 접촉하는 것들은 모두 타락한 천사 그룹인 귀신들이 하는 장난이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적 입장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한 군데 죽은 사람과 교통했다는 사실이 사무엘 서에 나오는데, 그것은 사무엘의 진짜 영혼이 땅속에서 올라 온 것이 아닌 악령의 속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이런 것들은 속임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 활동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당이나 영매, 박수, 초혼자, 신접자 등은 죽이라고 구약에서 말합니다.

신명기 18 : 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신명기 18 : 10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명기 18 : 11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신명기 18 : 12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 내시느니라

신명기 18 : 1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신명기 18 : 14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용납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하여 받아 들이지 말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라는 확신에 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 :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음,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체험하기 위해선 예수님 편에서 먼저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II.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선 예수님 편에서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7 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위에 계실 때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므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야만, 우리는 성령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7 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거하시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육신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육신으로 인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깨어짐으로 인해 그의 영은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육체가 깨어진 후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회복되지 않으면 성령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 복음 7:39 에는

요한복음 7 :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

다시 말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받아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 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성령을 소유할 수 되기 위해선 예수님은 죽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곧 창세 전부터 아들로써 누리던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 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 : 5 에서,

요한복음 17 :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역자 주)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시면,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하여 요 14:26 은,

요한복음 14 :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으로 오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이 예수님은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사도행전 1 : 4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 :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120 문도가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확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 :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므로, 아들로써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현재 체험하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오늘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충만히 체험하게 됩니다. 문선명이는 예수님이 죽어서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당이나 영매, 초혼자 등과 같은 어린애나 속이는 영적 사기입니다. 문 선명이기 지금 90을 넘었다고 하니까 곧 죽을 때가 다가 옵니다. 원죄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가 왜 죽어야 하는지, 또 살아서 성공한 것이 무엇인가 입증해야 합니다.

III. 그러면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체험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체험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체험은 생명의 충만과 인격의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생전에 하시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에 대해 차례로 공부하십시오.

1.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생전에 하시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신 다는 것
부터 공부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당신이 몸으로 계실 때 하시던 일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4 :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육신으로 계실 때 내가 말한 것, 가르친 것을 다시 반복한다.

어떻게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계실 때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려 하는 자는 성령을 마음 안에 모시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한국에서는 웃지 못할 happening 이 있습니다. 성령의 ‘성’ 자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강해를 한다 하고, 설교를 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김용옥 교수의 요한 복음 강해가 바로 그것이며, 그가
설교를 하러 다녔다는 것이 그 것입니다.

금년 연제인이 쓴글인 것 같은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서의 이해'와 '요한복음강해' 2 서를 저술케 된 것은 실로 우연이었다. EBS 에서 나에게 일반인을 위한
영어강독 인터넷 강좌를 요청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나는 영어강독 교재로서는 바이블만큼 좋은 교재가 없다 했고,
그 의견이 수렴되어 상기 2 서를 집필케 된 것이다. 나는 22 세 때 --- 중략--- 내 생애를 통해 꼭 그 주석서를
내리라고 마음먹었다. --요한복음' 주석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리라고는 꿈꾸지 못했다. 의외로 그 파장은
일파만파였다. 각 언론과 교단의 반향도 컸고 나는 여기저기 설교자로 불려 다녀야 했다.'

요한 복음을 이해하려면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은 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 요한 복음 강해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폐일언하고 이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고 지나갈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하길,

그리고 드디어 한국 신학계를 대변하는 석학들 앞에서 정직한 검증을 받는 대토론회에까지 서게 되었다.--우리에게는 니케아종교회의보다도 더 의미 있는 자리였을 것이다. -- 그 비판의 격조가 조선문명 속에 흡수된 기독교의 성숙한 모습을 과시했기 때문이었다. 그제(25 일)는 기독교방송(CBS) 전 직원과 허심탄회한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한국기독교는 새로운 개방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상 큰 종교회의가 몇번 있었는데, 니케아 종교회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욱 교수는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니케아 종교회의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 교수의 이런 착각, 자화자찬, 기이한 행적을 이해한다는 것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4 :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께 배울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김 용욱 교수가 한 일은 가히 기네스 북에 오를 일입니다.

2. 다음 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생명의 충만함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 :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예수님의 충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합니다. 롬 5:17 에서,

로마서 5 : 17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어떻게 왕노릇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이 세상에는 생명이 갖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천지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지배자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성령안에서 있습니다. 이 영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인하여 천지에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살이의 모든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령해도 파도가 가라앉지 않는데요’ 하는 사람은, 개구리 우는 소리에 벌벌 떠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또 ‘그런 것이 아무나 다되나요’ 하는 사람은 고양이로 태어나 쥐에게 쫓겨다니는 한심한 고양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울음 소리에 사자가 주눅이 들어 사시나무 떨 듯 떨고 있는 모습을,

죽기를 각오하고 명령해 보십시오. 안되는 것이 있나. 안되면 될 때까지 천번 만번 해보십시오. 파도는 가라앉고야 맙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매달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현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살아 갑니다.

이런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더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2. 다음은 우리의 인격의 문제를 고쳐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 생명의 품성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덕성이 겸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길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누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할 때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않고 태어 난자라고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번 나올까 말까한 대사도가 왜 자신을 만삭되지 않고 태어 난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신약 성경이 거의 다 그의 영감에 의해 씌여졌습니다. 그는 후대의 기독교인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자신을 바라다 보면 **조그만 일에** 무력하게 굴복하는 자신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 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처럼 큰 죄는 짓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 얼마나 자주 굴복합니까? 작은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남의 조그마한 흥을 잘 들추어 냅니다. 나는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대접을 못 받으면 섭섭합니다. 조그만 일에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보다 잘 낫다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겸손이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이렇게 작다고 하며 굴복한 죄에 대한 징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죄에 굴복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또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환란은, **우리의 무슨 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죄에 대한 징계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만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는 겸손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이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sign 이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이런 징계의 손길을 만나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뽑아내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한 아름다운 인격의 변화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탬파에 와서 한 3 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Y 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 Mr. Y 은 생화학 박사인 암전한 사람이었고, Mrs. Y 은 성악가인데 유학생 부부입니다.

Mrs Y 은 독특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Mrs. Y 은 성악가 이기 때문에, 부흥회 때면 꼭 불러 간담니다. 그런데 예배 도중에도 부흥 강사의 설교가 비위에 안맞는다 생각되면, 벌떡 일어나 하이힐 소리를 따각따각 내며, 예배실을 가로질러 나오는 괴짜 여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50 살이 넘는 장로 부인에게 40 도 안되는 젊은 사람이 말을 놓고 지냅니다. 이런 여자가 제자 훈련에 참가한 것입니다. 첫날 공부 후에 순조롭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St. Pete 에서 tampa 로 오는 도중에 Gandy bridge 를 건너 오면서, 제가 준 Tape 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때 성령께서 갑자기 차안에서 이 여자에게 임했습니다. Tape 를 듣던 중, 어제 공부한 성경 구절중 한 구절이, 방망이처럼 이 여자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창세기 3 장 21 절 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이 되어 철벽성을 부수는 병기처럼 이 여자의 마음을 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눈물이 어찌나 쏟아지는지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어 길가에 차를 세워 놓고, 운전대에 엎드려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맺혀 있던 슬픔의 응어리가 다 풀어지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중지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부부는 심각한 성격상의 문제로 5 개월 이상을 별방을 하는 중에, 우리 성경 공부에 참석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 더러운 것들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다 씻겨 나갔습니다.

그 후 Mrs Y 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처럼 완전히 변했습니다. 얼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부부에게 영주권을 얻게 도와 주기로 했지만,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하길 원한다면서, 사양을 하고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무얼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부가 성령을 받고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은 저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 속에서 제일 먼저 변화가 체험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인격과 삶의 모든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변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많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풍성히 자신을 나타내시므로 영혼이 잘됩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하늘 나라가 점점 풍성히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